



## 19. 예능 PD가 되는 길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현장 탐방 - 예능 PD</li> <li>▪ 예능 PD에 대한 이해</li> <li>▪ NCS를 통해서 본 예능 PD</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직업 전문가를 통한 예능 PD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li> <li>▪ 예능 PD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li>▪ NCS를 통해서 예능 PD로서 진로 수업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li> </ul>

### <직업현장 탐방>

PD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 디렉트의 줄임말로 방송, 연극, 영화에서 기획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방송의 피디는 시청자들이 어디에서 공감하고, 지루함을 느낄지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그만큼 피디는 어렵고 힘든 직업입니다. JTBC의 주철환 피디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100의 피디에게 물어보면 100명의 피디의 대답은 다 다를 듯한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피디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표를 마련해주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충 알 거예요 그죠? 무한도전 피디는 예능 피디잖아요. 해를 품은달이다. 그런 건 드라마 피디죠? 그리고 피디수첩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60분이다 이런 건 시사교양 피디겠죠? 적극성, 그것은 피디에게 굉장히 그거는 필요한 어떤 필수요소예요. 적극적 이여야 되요 무조건, 소극적인 거는 피디에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피디는 말을 잘해야 되요.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게 유재석씨처럼 막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손석희씨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눌한 거 같은데 말을 또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상식은 굉장히 또 필요해요. 왜냐, 왜 필요 하느냐 NLL이라는 게 있다. 근데 NLL이라는 걸 뭔지 몰라 피디가. 그러면 NLL이 뭐야 그러면 NLL이 이런, 이런, 이런 거야. 이러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 풍부한 것, 창의성이 있는 것, 독창적이 어떤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 의욕, 패기, 끈기 작가가 있고 카메라맨이 있고 연극자가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요. 친화력, 그건 매우 또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을 또 섭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우 나는 그 사람에게 나 백일섭씨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 그러면 피디 자격이 없죠. 그러면, 그거를 못한다면 피디에 어울리지 않죠. 여기서 잠깐, 피디가 되려면 프로그램 기획능력만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혼자 상상하면 혼자 진행해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인 모습과 기본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거기에 상상력, 창의성, 독창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추진하는 열정, 의욕, 패기, 끈기를 가지고 친화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몰아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피디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공은 상관없고 심지어 대학을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왜 대학을 가느냐, 대학 가면 대학은 유니버시티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면 좋은 점은 정보가 많은 거예요. 왜 스카이 대학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많을까? 그들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엘리트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가속도로 더 열심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왕이면 명문대학을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수입은 평균적인 어떤 그런 직장보다는 고소득이다. 상중하로 나누면 분명히 상위에 속할 거예요. 아마, 그 대신 노동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연봉은 다 똑같은데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무한도전 피디가 시청률이 계속 좋아 그리고 화제를 계속 불러일으켜요. 그럼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죠. 라이프스타일이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 이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하는 피디 다 다르고 예능피디 중에서도 무한도전 하는 피디와 라디오스타 하는 피디는 아마 또 노동 강도가 또 다를 거예요 아마. 뭐 지금 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이 좋다고 하는 예를 들면 무한도전, 무한도전 같은 경우면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오는 유재석씨 박명수씨 뭐 정준하씨 뭐 정형돈씨 뭐 노홍철씨 쪽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참 힘들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하고 계속 뭔가 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되겠다. 그거는 밤을 새워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밤을 새는 것도 아니예요. 어떤 사람은 요령 있게 해요. 저녁 여덟시에 딱 끝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피디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 하던 간 따라 모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피디의 라이프스타일의 공통점이 있다면 항상 고민하고 다른 스태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에 균열이 일어나서 이로써 시청률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디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전망이요? 전망은 피디 지망생들에게는 경쟁률이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많아졌으니까, 케이블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많죠. 그러니까 예비 피디들에게는 문화가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피디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피디들이 더 막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방송사가 많아지고 피디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는데 왜 피디가 되는 것이 어려워 졌을까요? 방송사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피디 지망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방송국 피디 지원률도 높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피디에 뽑히게 되는 걸까요?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엄마는 왜 저래 우리학교는 왜이래 우리선생님 왜 저래 우리나라는 왜이래 이렇게 탓만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냥 부러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부러워하다가 날샌다는 말이 있거든요? 다만 꿈을 꾸면 몽상이 된다고, 그것을 희망으로 바꿔야 돼, 희망이란 뭐냐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넌 할 수 있어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럼 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난 할 수 있어요. 희망,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경쟁력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모두 뭐 24시간이라는 시간의 기회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헛되이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누가 제일 지금 희망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중학생이 제일 희망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시간이라는 선물이 무궁무진 기다리고 있어요. 거저 되는 거는 없어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피디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기 스스로 잘 선택해요 일단, 그러니까 피디는 반드시 상상력, 창의력, 그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있어야 되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발로 움직여야 되요. 그러니까 체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불멸의 이순신이다 이런 드라마 찍으면 엑스트라만 해도 막 500명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액션 이렇게 하려면 지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내 인생에 나를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먼저 자기 진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도전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NCS를 기반으로 한 직업탐구, 예능 피디가 되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방송들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아마 요즘 재미있는 방송들 보면서 때로 한번 힘든 시간들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시간도 즐기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크넷에 들어가서 가지고 보시면 좋은데요. Work.co.kr, 다 아시죠 그죠? 예능피디 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조금 나올 건데, 방송연출가, 또는 예능 중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서 라는 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연출가 한번 볼까요? 이런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여 제작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능 피디는 그 중에서 예능적인 요소가 하겠죠. 티비나 시사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를 이제 선정해야 되고 예능 피디는 그리고 제작들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설명하고 완성된 대본을 평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역도 의상이라던 지, 무대라던 지, 음악이라던 지, 카메라라던 지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모든 요소를 다 바라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방송피디라고 많이 하는데 영화에서는 우리가 감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든 걸 총괄하는 것을 연출가라고 해서 감독이라고 불러도 방송 감독이라고 예전에는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PD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보고서라는 걸 만들고 CP라고 하는데요. 총괄 프로듀서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연출, 조연출 그 다음 구성작가, 기획구성을 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이제 공개로 할 건지 비공개로 할 건지 녹화로 할 건지 생방으로 할 건지 우리가 스튜디오 제작에서부터든 경우에 따라 외주제작을 이제 전문 프로그램 제작사 에다가 의뢰를 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전반적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큐시트, 대본안 뭐 MC, 출연자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고 스텝들도 어떻게 구성 하느냐 그죠, 이런 모든 역할들 다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능 피디는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음악을 하는 뮤직 쇼 라든지, 버라이어티 쇼 라든지 코미디 라든지 요즘 뭐 유행하는 토크쇼 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 구상하고 싶고 하고, 리얼 버라이어티도 아주 대세 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요즘 또 티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아예 특화 된 부분도 많습니다. 종편 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공중파 외에서도 다양한 방송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기획, 총괄하고 종사원 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무환경으로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방송국에서 보면 대체로 이제 정규직 이라는 일을 하고 들어 가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또 치열 하겠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방송국이 아니라면

프로덕션 이라던지 프로덕션 이라도 규모가 큰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영세한 프로덕션에 들어가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 하거든요. 좁다란 방에서 촬영 편집 모든걸 다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일을 사실 좋아하지 않고는 사실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듯 저도 방송국에 잠시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근무 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곳에 있지만 정말 즐겁게 또 이렇게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출가가 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지식 기술로는 대학의 관련 학과나 사설학원에서도 받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거 아니 여도 신문방송에서도 있겠지만 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학생들은 또 그렇게 해서 관련 과가 아니라도 동아리 활동 이라던지 뭐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도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로 학력은 뭐 89퍼센트 이상이 대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체능 계열도 있지만 인문 사회계열 이렇게 해서 분포가 사회계열 쪽이 조금 더 많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학과로는 광고홍보라던지 신문방송, 딱 정확하죠 그죠. 연극영화 연출이라는 것이 또 방송이 아니라 연극도 있고 무대도 있으니까 영상예술 이라던지 정보미디어 학과든 사실 뭐 특정한 그런 학과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성이나 흥미로는 아무래도 이게 여러 사람들을 총괄해야 되다 보니까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대인관계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시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능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필요하고 풍부한 어떤 아무래도 상상능력이 필요하고 작품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창작자로서의 어떤 고통 이라든지 창의성 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티비 프로그램 잘 만드시면 영화감독으로도 하고요. 연극 연출도 하게 되고 CF 제작도 하게 되고 요즘 웹 방송도 하게 되고, 음반 이라던지 본인이 직접 이제 배우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극, 영화 뭐 여러가지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연출도 하게 되고 아나운서 역할도 하게 되고 여러가지 광범위한 모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뭐 전지전능한 역할이 예능 피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NCS를 기반으로 우리가 예능 피디가 되는 방법 한번 알아보까요? [www.ncs.go.kr](http://www.ncs.go.kr)로 우리 학생들 좀 자주 들어오도록 하고요. 선생님들도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대분류로 보면 이제 문화예술 디자인방송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중분류로 보면 문화 콘텐츠, 소분류에는 문화 콘텐츠 기획, 세 분류에는 방송 콘텐츠기획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능력단위가 이제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기획이 이제 가까운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 능력 단위 들을 우리 학생이 맞춰서 어떻게 찾아 갈건 지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검색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산업이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환경 분석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송이라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 나가는가, 굉장히 이제 방송환경이 많이 바뀌 나가고 있거든요. 일단 시청률자체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방송 채널이 많다 보니까 재밌는 방송이 이제 그만큼 많아지고 또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시청자 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송을 연출하는 사람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사자들 중에서도 이제 방송 콘텐츠 제작자들 바라볼 수가 있을 거 같고요. 방송 제작만 하는 분들이 무려 3만 8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또 움직여 갈수가 있고 음악, 광고, 게임 이런 다양한 분야로도 이제 문화 콘텐츠 전반에서 또 종사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능력단위로 NCS 능력단위를 본다면 프로그램 기획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캐스팅, 우리가 섭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연예인들을 오히려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연예 티비가 됐다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작 스태프 구성을 해야 되고 제작 준비하고 촬영 제작하고 촬영을 하고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편집을 거의 날새도록 하니까 제작, 편집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 편집을 해야 되고 최종으로 또 자막 넣는 것에서 부터 어떻게 이제 최종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 광고도 사실 섭외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예능 피디가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 광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사실은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 사후관리에 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NCS 능력단위에 프로그램 기획을 본다면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획단계로서 제작 책임자를 이제 선별하고 그쵸 그 출연진을 선별하고 기획회의를 해서 기획안을 작성해서 또 방송국 본부 에다가 예산안을 어떻게 하겠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다,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겠다, 어느 정도 그쵸 광고수익 이런 것도 예산수익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입까지 계획해서 제출안을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편성목적과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구현해서 자신에게 이제 적합한 제작진을 선임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바라본다 라면 지식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 스태프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방송 제작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쵸. 기술로 본다면 제작진에 대한 정보라든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조직을 이제 통합해 나가는 능력, 태도로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책임자를 이제 선임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좀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쵸. 그쵸? 최고의 제작진을 또 구성하려고 하는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거 같고요. 제작 스태프 하고도 늘 이제 갈등을 이제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객관적인 태도, 소통능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NCS 학습 모듈로 들어가면 책임 제작진 선임하는 방법이라던지 계획안 작성하는 방법이라던지, 예산안 수립하는 방법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한 50여 페이지 가량 되니까 꼭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방송 콘텐츠 제작에서 프로그램 기획에 들어가서 직무에 대한 정보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시면 책임 제작진은 어떻게 선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제작이던지 프로그램 기획의도 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 진로 수업에서도 만들 수 있겠쵸. 그쵸?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서 우리학생들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 자기 고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시간이 된다면 그런 동아리들도 학교 내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직접,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찍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학생들 스마트폰으로도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의만 듣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다면 좋을 거 같고요. 불과 한 몇시 간 만에 이렇게 만든 작품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참 놀랍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파에 들어가기 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나중에 이게 포토폴리오가 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만든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들 기대하면서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방송을 제작한다라는 이런 웃지 못 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자리가 많아지려고 하면 이런 문화 예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 나갈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